화북상업지역 기반시설 공사는 마쳤는데…

제주시, 환지처분 공고 완료… 내년까지 행정절차 마무리
핵심 주상복합용지 등 체비지 매각은 매수자 없어 난항

제주시 화북상업지역의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면서 환지청산 마무리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이번 사업의 핵심인 주상복합용지 체비지 매각은 여전히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문제다.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 공고를 완료함에 따라 환지청산 등 사업 마무리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 21만6988.5㎡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1월 실시계획인가 이후 환지방식에 따라 입체환지 아파트 건립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 중이다.

총사업비는 1438억원이며,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왔다. 이어 지난 8월 3일 환지계획 변경인가, 5일 기반시설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공고를 완료했다.

이에 시는 8월 6일부터 환지청산 절차에 착수했고, 현재 환지청산금의 징수·교부와 환지등기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내년 8월까지 환지청산금 징수·교부 및 환지등기를 추진하고, 이후 잔여 청산금 정리와 미교부금 공탁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내년도 말까지 환지청산 및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이 사업의 핵심인 주상복합용지 체비지 매각이다. 올 들어 10여 차례에 걸쳐 공매까지 진행했으나 매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는 11차 공매에 앞서 해당 체비지의 허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건축고도 기준을 완화했다. 공매 예정가격도 ㎡당 412만원(3.3㎡당 약 1360만원), 총 예정가격 800억6000만원가량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체비지 매각에는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화북상업지역의 체비지 33필지·3만5397.5㎡ 가운데 27필지·1만2784.7㎡(704억원) 규모가 매각됐다. 매각되지 않은 5필지는 주상복합 1필지·1만9432㎡를 비롯해 대규모 체비지 1필지·1015.7㎡(29억4600만원 상당), 일반용지 3필지·1387.1㎡(41억1900만원 상당) 등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지난 12일 제주구억마을 전통옹기전수관에서 '꽃으로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옹기에 다육 식물을 심는 '옹기마을 예술 살롱'을 진행하고 있다. 진선희기자

일상 속 예술 접하며 더 가까워진 이웃

동행, 우리가 함께해요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8> 제주옹점(하)

지역 예술인 초청 '예술 살롱'
딱딱한 강의보단 체험 위주
"예술로 지역 활력 지속되길"

한 아름의 꽃과 풀이 공간 한편을 채우고 있었다. 허브나 나무를 묶어 말린 뒤 불을 붙여 연기를 내서 실내 분위기를 바꾸고 마음을 정돈하기 위한 것이라는 '스머지 스틱' 재료였다.

지난 12일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구억마을 전통옹기전수관. 주최 측에서 제주 옹기 찻잔에 따라주는 차를 마시며 주말 오전의 여유를 누린 이들은 송계선 강사의 설명을 들은 뒤 스머지 스틱 제작에 나섰다. 로즈마리, 레몬밤 등 허브 향이 흐르는 체험을 벌이는 동안 참가자들은 거의 쉴 새 없이 대화를 나눴다. 그다음 순서로 금이 간 그릇 등을 재활용한 다육 식물 심기가 진행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올망졸망 식물들로 옹기를 작은 정원으로 변신시키는 체험장은 활기가 넘쳤다.

이날 프로그램은 제주옹점 '옹기마을 공감 프로젝트'의 '옹기마을 예술 살롱' 첫 순서. '꽃으로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정착주민과 지역주민들이 예술로 감각을 깨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술 살롱'은 지역 예술인들을 강사로 초청한 프로그램이다. 원예 분야를 시작으로 구억리장을 지낸 강동완 사진가의 '사진으로 기록하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유산', 강미영 가야금 연주자의 '전통 선율의 아름다움', 칠보공예 고난영 작가의 '반짝이는 전통 공예'가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진다. 딱딱한 강의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 촬영, 가야금 연주 체험, 팔찌 만들기 등 참가자들이 일상 속 예술을 접하며 지역을 이해하고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로 이끈다.

이번 '예술 살롱'은 구억리 등에 살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교류 기회를 넓히는 마중물이 됐다. 지난달 말엔 '구억모다터'란 이름으로 뭉친 예술인들이 제주소통협력센터 후원으로 전통옹기전수관에서 '제주 옹기 만남의 날'을 열었다.

이경희 제주옹점 대표는 "공감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예술 살롱' 강사진 외에도 공예, 캘리그라피, 서각, 한국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인재'들을 추천받거나 알게 됐다"며 "정착주민 중에도 예술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포함해 앞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옹기마을 공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더라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제작 지원=제주특별자치도청>

오늘 도·도의회 정책협의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21일 도청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어 제주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민선 9기 제주도정과 제13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내년 재정운용 방향, 제주4·3 해결, 2차 공공기관 유치, 2028년 G20 유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어르신 그라운드골프 열기 지난 19일 제주시 종합경기장내 애향운동장에서 열린 2026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경기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배합사료가격 30% 폭증… 축산농가 구매 부담
제주시, 경영난 완화… 사료 구매 정책자금 83억 지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오르며 제주지역 축산농가의 배합사료 구매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20일 제주시, 제주축협, 양돈농협 등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9~2026년) 배합사료 가격(공장도 기준)은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부터 급상승해 전쟁 이전의 가격 대비 30%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젖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2019년 477원(1kg 기준)에서 2022년 669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 616원을 기록했다. 지난 7년 새 29.1% 급증했다. 고기소 배합사료 가격도 2019년 392원에서 올해 521원으로 32.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기간에 양계용과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 변동률은 각각 30.6%와 29.5% 오르며 대체적으로 축산농가의 배합사료 구매 부담이 30%가량 더 늘었다. 여기에 제주도 내 배합사료 운반료도 1t당 6만5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전반적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지속적인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료 수급을 돕기 위해 사료 구매 정책자금 83억원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14~28일 신청을 접수한 결과, 41개 농가에 65억원을 우선 지원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2일까지 18억원 규모의 추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하반기 사료 구매 정책자금은 전액 융자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자금은 농가와 계약된 사료 공급업체에 직접 입금되며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에 쓰인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추천 통보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지역 농·축협, 양돈농협 등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해 오는 11월 9일까지 대출 실행을 마치면 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109농가에 사료구매자금 172억원을 지원했다. 백금탁기자

제주 최초
청각학 박사 학위 취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청각학)

원장 강동우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 전문청능사 언어재활사
- 한국청능사협회 상임이사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운영이사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정회원

와이덱스 보청기
강동우 청각센터
청각학 박사가 직접 상담하는 청각전문센터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관리로
더 잘 듣고, 더 편안한 일상을 함께합니다.
개인마다 다른 청력 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평가와 맞춤 상담,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지켜드립니다.

청력 평가 | 난청 상담 | 보청기 상담 | 청능재활 |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동우청각센터의 차별성
청각학 박사 직접 상담
체계적인 피팅 및 관리 시스템
최신 청력평가 장비 운영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신뢰
개인별 청취환경 분석
검증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다이소 옆

청각의 가치를 높여 더 나은 삶을 함께합니다
제주시 동광로 4, 삼욱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 1005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hearingjeju.com